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전후 캠프를 가다

직구 시속 150km·호수비… 터너·김기훈 쾌조의 신고식

KIA 타이거즈

야쿠르트와 연습경기 2-8 강우콜드패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새 얼굴' 제이콥 터너와 김기훈이 신고식을 치렀다.

KIA가 14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이변 스프링 캠프 세 번째 연습 경기를 치렀다.

6회 2-8 강우 콜드게임 패로 끝난 이 경기의 눈길은 마운드에 쏠렸다.

신입 외국인 선수 제이콥 터너가 선발로 나서 타이거즈 선수로 첫 선을 보였고, 터너에 이어 이변 캠프의 '샛별' 고졸 좌완 김기훈이 마운드에 올랐다.

터너는 첫 타자 시오미에게 좌완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이후 깔끔한 피칭을 이어가면서 2이닝 1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도 150km를 찍었다.

KIA의 두 번째 투수로 프로 첫 마운드를 밟은 김기훈은 첫 아웃카운트를 직접 처리했다. 3회말 선두타자 마츠모토의 땅볼 타구를 잡아 1루에 송구해 원아웃을 채운 김기훈은 두 번째 아웃 카운트도 책임졌다. 볼넷으로 내보낸 요시다를 견제사로 잡아내면서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제구 난조로 3연속 볼넷을 허용하면서

■터너

2이닝 1피홈런·3탈삼진

“팀원들과 즐겁게 환경 적응

우리의 목표는 팀 승리

스트라이크 늘려 수싸움 이끌 것“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기훈의 첫 등판은 1이닝 3볼넷 무실점으로 끝났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

터너는 “좋은 타자들이 많았다.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홈런을) 맞았다”며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데 집중했다”고 첫 등판을 평가했다.

새로운 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많이 알아가고 있고,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언급대로 터너는 적극적인 자세로 팀에 융화되어가고 있다. 1회말 실점을 하고 내려온 터너는 KIA의 공격이 전개되던 2회초 그라운드를 주시하면서 응원을 보냈다. 이은총이 적시타에 이어 도루까지 선보이자 크게 박수를 치는 등 연습경기지만 덕아웃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뛰었다.

■김기훈

견제사 등 1이닝 무실점 피칭

“타자들 통해 프로 높은 벽 실감

좋은 타이밍에 견제해 자신감 얻어

제구력 가장 신경…승부사 되겠다

터너는 “우리는 승리를 목표로 한다. 우리 타자들이 어떻게 치는지도 알아야 하고 응원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투구수를 늘려나가야 하니까 3이닝, 5이닝 이상 던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카운트 유리하게 끌고나가면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데 집중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못 던진 것 같다”고 자평한 김기훈은 제구에 신경을 써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김기훈은 “던지면서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꼈다. 제구력과 아직 확실하지 않은 변화구 그 두 개가 부족하게 느껴졌다”며 “평소 던지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경직된 것 같다”고 아쉬웠다.

아마추어 때와는 달리 커트를 하면서 끈질기게 승부하는 타자들을 통해 프로의 높은 벽도 느꼈지



제이콥 터너



김기훈

만,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었다.

김기훈은 “견제하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주자가 나가면 견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은 타이밍에 견제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며 “틸리스 포인트가 고등학교 때 보다 더 앞으로 나온다. 볼끝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또 상체로 많이 던지는 편이었는데 중심 이동 운동을 많이 해서 조

금 더 하체를 쓴다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구 숙제를 풀겠다는 그는 “급했다. 내 볼을 확실하게 못 던졌다. 급하면서 품적인 부분도 빠른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시합 나가면서 경험 쌓고, 어떻게 카운트 승부해야하는 지 더 공부하면서 제구력을 가장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생각하는 축구’ 위해 끊임없는 대화 … “올해는 승적 해야죠”

광주 FC

시합중에도 양방향 소통

조별과제로 필승 비법 만들고

팀원 전력 분석 ‘승리 해법’ 찾기

K리그1 복귀를 노리는 광주 FC가 ‘말’로 전력을 키운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박진섭 감독은 4강을 목표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승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큰 목표를 내세웠지만 아직 빈틈은 많다. 나상호가 떠난 자리를 채워야 하고, 화력 지원에 나설 외국인 선수도 아직 영입하지 못했다. 광주의 첫 외국인 수비수인 아슬만토프를 비롯한 이한도, 김태운 등 수비진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올 시즌을 준비하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 바로 생각과 말이다.

광주의 훈련은 몸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훈련 도중 선수들 간의 대화는 물론 감독과 선수들의 대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 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연습 경기 도중에도 ‘특별 미팅’이 진행된다. 그라운드에서 잠시 물러나 박 감독과 대화를 한 뒤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일도 종종 있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 ‘왜? 어떻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 중간에도 대화가 이뤄진다.

박 감독은 현역 시절 ‘피들이’로 통했다. 영리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갔던 박 감독은 광주의 ‘생각하는 축구’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양방향 소통을 어색하게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감독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난 13일 비셀 고베와의 연습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프 타임에 수비수 이은뎀은 정영총과 감독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반전 플레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았다.

아예 감독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선수들에게 조별 과제를 제시해 ‘필승 비법’을 찾고, 이를 발표하도록 하는 시간도 있다.

선수들은 “3-5-2 전술의 우리 팀과 4-3-3의 포메이션의 상대 팀. 우리 팀이 열세로 3점도 실력이고, 상대가 7의 실력이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와 같은 과제를 받고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루키 이희균은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할지 또 이 포메이션의 장점은 뭔지를 설명하고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실력이 3이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웃음)”며 “빌드업이 힘들니까 카이랑 약속된 플레이로 어디 공간에 찔러준다. 공격은 카운트 어택으로 나서고, 수비는 더 조직적으로 해서 상대 공격에게 볼이 가지 않도록 공간을 좁혔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술이고 가장 정확한 필승 방법이지만 선수들이 쉽게 잊고 있는 부분들이다. 전체적으로 팀을 조망하면서 선수들은 ‘피들이’



광주 FC 선수들이 14일 구시가지 경기장에서 패스 게임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팀의 모습을 인식해가고 있다.

시야를 넓혀가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다.

이희균은 “머리가 아팠다. 감독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부족한 전력을 말로 끌어올리고 있는 광주. 그들의 말 많은 2019시즌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wool@kwangju.co.kr

연습경기 3골 활약 … ‘포스트 나상호’ 도전

신인 이희균 “프로 데뷔·올림픽 대표 되는데 올 목표”

광주 FC의 이희균이 ‘포스트 나상호’에 도전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2019시즌을 준비하는 광주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화력’이다. 지난 시즌 16골을 넣으면서 K리그 2 득점왕에 올랐던 나상호가 올 시즌 FC 도쿄로 이적을 하면서 광주는 ‘해결사’를 찾고 있다.

경험 많은 선배들 사이에서 루키 이희균(21)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호고 출신인 이희균은 지난 광양 동계훈련부터 박진섭 감독이 주목한 유망주다. 프로 첫 전지훈련에 이희균은 착실하게 광주

의 색을 더해가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네 차례 연습경기에서 3골도 기록했다.

지난 13일 ‘스타 군단’ 비셀 고베와의 연습경기에서는 두현석의 골을 돕기도 했다. 결과는 아쉽게 2-4 역전패였지만 이제 막 프로에 입단한 신인 선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기였다.

이희균은 “바스에서 이니에스타, 비야, 포돌스키가 내리는 것 보니까 신기하고, 경기를 뛸 때도 신기했다. 패스하는 것도 달라 보이고 신기했다”며 “다비드 비야가 프리킥으로 유명한 선수인데(득점 상황에서) 그렇게 잘 쏘았다. 형들이 점

프할 게 보였던 것 같다. 밑에 차는 걸 보면서 괜히 39의 나이에 3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과 나란히 뛸 소감을 밝혔다.

“신기했다”며 웃었지만 이희균은 이날 자신의 플레이를 선보이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패배 속에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와 희망도 확인했다.

그는 “전반전에는 좋은 경기를 했는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큰 실점을 했다. 뭘가 모르게 위축되어서 우리 플레이를 못 하고 실수가 잦았다”며 “우리팀이 이겨내야 할 숙제다.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좋은 경기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훈련을 통해 잘 준비하면 K리그



2 어떤 팀과 경기해도 승격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팀의 ‘승격’을 외친 당찬 신인이지만 이희균 자신의 꿈은 아직 소박하다.

“형들이 목표가 너무 작다고 한다”며 웃은 이희균은 “프로에 데뷔하고, 공격 포인트 5개, 올림픽 대표 가는 게 목표다. 형들이 더 크게 잡으라고 하는데 데뷔하고 다음 목표를 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박한 목표와 달리 광주는 이희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포스트 나상호’를 기대하면서 이희균의 움직임에 지켜보고 있다.

이희균은 “첫 동계 훈련이고 해외 훈련이었는데 힘들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부상 없이 좋은 수확을 한 것 같아 만족한다”며 (나상호의) 부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아직 팀 선수가 다 합류하지 않아서 나한테 기회가 온 게 사실이다. 확실히 기회를 잡아야겠다. 준비 잘해서 개막전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